

# ‘절망의 시대’가 다시 불러낸 김남주



## 김남주 시인 20주기

15일 광주 망월동 추모제

‘김남주 시전집’ ‘문학의 세계’ 발간

9월 26일 시극 ‘이 두메는 ...’ 공연

이 두메는 날라와 더불어

꽃이 되자 하네 꽃이

피어 눈물로 고여 발등에서 갈라지는

녹두꽃이 되자 하네

이 산골은 날라와 더불어

새가 되자 하네 새가

아랫녘 웃녘에서 울어에는

파랑새가 되자 하네

(김남주의 ‘노래’ 중에서)

광주 중의공원 아래쪽 비탈에는 김남주(1946~1994) 시인을 기리는 시비가 있다. 여기에는 시와 삶과 실천을 일치시키고자 했던 김남주 시인의 작품 ‘노래’가 새겨져 있다.

김남주는 80년대를 온몸으로 밀고 나간 ‘전사시인’이었다. 나아가 울픈 목소리로 한국문단을 일깨운 ‘민족시인’이기도 했다. 그뿐 아니라 청춘의 시절을 감옥에서 보내며 반독재 투쟁에 앞장섰던 ‘혁명 시인’이었다.

1946년 김남주는 해남에서 농민의 아들로 태어났다. 광주일고에 입학하지만 입시 위주의 교육에 환멸을 느껴 자퇴를 한다. 이후 검정고시로 전남대 영문과에 입학, 재학 중에 ‘3선 개헌 반대투쟁’에 참여한다. 이후 1972년 전국 최초의 반유신투쟁 지하신문 ‘함성’을 제작, 옥고를 치른다. 대학에서 제적을 당한 김남주는 1974년 ‘창작과비평’에 ‘진혼가’ 등을 발표하면서 문단에 얼굴을 내민다.

그러나 1979년 남조선민족해방전선 사건으로 다시 투옥된다. 1984년 발간된 첫 시집 ‘진혼가’는 옥중에서 칫솔대를 갈아 우유곽에 눌러 쓴 것으로 유명하다. 1993년 사면 복권되었지만 급속히 건강이 악화되고 1994년 췌장암으로 48세라는 짧은 생을 마감한다.

그는 생전에 작품집 ‘나의 갈 나의 피’ ‘조국은 하나다’ ‘사상의 거처’를 출간했으며 네루다가 하이네의 작품을 번역, 발간하기도 했다.

김남주 시인의 20주기(2월 13일)를 맞아 그의 문학과 정신을 기리는 추모행사와 책 발간 등이 잇따르고 있다.

김남주 시인 부인 박광숙씨는 9일 전화 인터뷰에서 “평소 시인은 자신의 시가 안 읽히는 시대가 왔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작금의 상황은 이전으로 회귀하는 것 같다”며 “시인의 시와 생애를 토대로 시극이 제작되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라고 20주기를 맞는 소회를 밝혔다.

출판사 참비는 김남주의 시 519편을 망라한 ‘김남주 시전집’과 그에 대한 평론 모음집 ‘김남주 문학의 세계’(염무웅·임흥배 엮음)를 이달 하순에 펴낸다. 이

번에 최초로 발간되는 ‘김남주 시전집’은 옥중시편을 꼼꼼하게 교정하고 다른 판본을 대조해 정리했다는 점에서 남다른 의미가 있다.

12일 오후에는 경향신문사 5층 강당에서 김남주 20주기 심포지엄이 열린다. 염무웅·김대현 등 평론가들이 발표와 토론을 통해 김남주의 삶과 문학을 조명한다.

광주에서는 오는 15일(오전 11시) 망월동 옛 5·18 묘지 김남주 묘소에서 추모제가 열린다. 광주전남작가회의, 시민단체, 유족 등이 참여하는 이번 추모제는 추모사, 추모시 낭송, 추모 공연 등이 펼쳐진다.

김남주기념사업회를 이끌고 있는 김경운(해남고 교사) 회장은 “김남주 시인은 문학을 통해 사회 변혁을 꿈꿨던 시인으로, 기존의 한국 문학을 지향했던 화두를 뛰어넘는 역동적인 시관(詩觀)을 견지했던 민중시인”이라고 말했다.

광주전남작가회의와 놀이책 신명, 극단 토박이, 광주민족미술협회가 공동으로 제작하는 시극 ‘이 두메는 날라와 더불어’는 9월 26일 광주 5·18기념문화센터 민주홀에서 공연된다.

모두 3마당으로 구성된 이번 시극은 김남주 시인의 작품을 주요 대본으로 해 줄거리가 짜여진다. 1마당 ‘시인이여’ ‘저 창살에 햇살이’는 시인의 넋을 모셔들이고 교도소 창살 속으로 스며드는 햇살의 다양한 의미를 조명한다. 2마당 ‘나의 갈 나의 피’와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룸이여’는 굴욕과 침묵을 깨고 들고 일어서는 봉기 장면과 우리 곁으로 돌아온 시인의 모습을 형상화한다. 마지막으로 3마당 ‘나와 함께 모든 노래가 사라진다면’은 아름다운 세상을 꿈꾸는 시인의 넋을 반추한다.

시극 외에 시화전 및 유품전시회를 비롯한 부대행사도 펼쳐진다. 9월 19일부터 26일까지 광주시립미술관 등에서 표구 작품전, 곁계 작품전, 유품 전시가 진행되며 시낭송대회(9월 19일)와 토론회(9월 26일)도 개최된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 임방울국악교실 수강생

17일부터 선착순 모집

(사)임방울국악진흥회(이사장 김종재)가 임방울국악교실 수강생을 모집한다.

분야는 판소리(금·오후 3시) 고법(화·오후 3시), 민요(목·오전10시), 한국무용(수·오전10시), 장고(수·오후3시30분), 다문화반(토·오전10시) 등 6개 과목이며 광주시 동구 아트스페이스 6층 판소리 시민체험장에서 주 2회 2시간씩 열린다.

수강생은 오는 17일부터 각 부분별 선착순 20명을 모집한다. 수강료는 월 1만원이다.

강사진은 다음과 같다. ▲고법=임영일(중요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고법 이수자) ▲한국무용=박선옥(광주여대 무용학과 교수) ▲장고=김준영(중물연희예술단 광대) ▲민요=최연자(중요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이수자) ▲판소리=박춘맹(임방울국악제 대통령상 수상) ▲다문화반=김양희(예향문화창작 예술단 수석), 문의 062-521-0731.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목요상설무대 기획공연

21일까지 7개 작품 공모

광주문화재단은 지역 예술인과 예술단체를 대상으로 오는 21일까지 목요상설무대 기획공연 7개 작품을 공모한다.

공모는 국악, 연극, 음악, 무용, 뮤지컬, 갈라, 오페라, 갈라 등 다양한 장르의 소규모 공연 작품을 대상으로 한다.

선정된 작품에는 공연장 무료대관, 장비·기계·시설 및 운용인력, 안내 도우미, 홍보물 제작 등이 지원된다.

목요상설무대는 광주문화재단이 운영하고 있는 빛고을아트스페이스 5층 소공연장을 활용해 지역 소규모 공연예술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2011년부터 시작했다.

지난해에는 20회 공연에 2000여 명이 관람했다. 올해는 7개 작품을 선정, 4~5월 매주 목요일 공연을 진행할 계획이다. 문의 062-670-7492. /이보람기자 boram@kwangju.co.kr

## 청년작가들의 예술 대화 **공갤러리·한평갤러리 ‘주역들’전**

광주 예술의 거리와 대인시장에서 문화 사업을 이끌어온 청년작가들의 특별한 전시가 열린다.

광주문화재단은 2013년 아시아문화예술활성화거점프로그램 운영 사업을 마무리하면서 오는 21일까지 예술의 거리 공 갤러리와 대인시장 내 한 평 갤러리에서 청년작가 17명이 참여하는 ‘주역들’전을 개최한다.

전시는 지난해 무들마루 사업단(총감독 신호윤)의 기획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작가들이 대인아시장, 문화예술 투어 등을 통해 직접 시민들과 교감한 작품으로 구성된다.

회화, 조각, 설치, 미디어 등 다양한 장르의 작가들은 각자 아개는 소장품이나 자신의 특징이 잘 드러난 대표작을 2~3점씩 출품, 작품을 통한 예술가식 대화를 시도하기도 한다.

참여작가는 박세희·장진수·장원석·백상욱·이인성·김동아·김윤영·윤인자·조강수·임기준·김혁·김탁현·채지운·김경란·성혜림·양나희·Tim Han 등이다. 문의 062-670-7452, 7455. /김경민기자 kki@

▶장원석 작 ‘Dream=landscape’



since 1982

### 창업 32주년 **국제보청기**

www.kjhr.com

디지털 보청기(미국·독일·덴마크)를 정기적으로 서비스를 받으세요

- ✓ 첨단 디지털 기술로 필요한 소리만 **똑똑하게 들립니다.**
- ✓ 착용시 아주 작은 사이즈로 **거부감이 없습니다.**
- ✓ 많은 고객과 상품관리로 **가격이 부담없습니다.**

본 점 062)227-9940	총장점 062)227-9970
목포점 061)262-9200	장흥점 080)222-9975
서울점 02)765-9940	순천점 061)752-9940

### 내 집 같은 편안함!

고객님의 여행과 휴식을 한 차원 높은 수준으로 업그레이드 하여 드립니다.

- 부담없습니다! 5~6만원대 중저가 비즈니스 호텔
- 편안합니다! 한뼘 한뼘 직접 웨어 정성껏 준비하는 깨끗한 침구
- 갖고 여행객, 비즈니스 출장객에게 더욱 좋습니다.
- 편리합니다!
  - 광주역에서 도보 7분, 광주고속터미널차편 15분거리
  - 전남대, 조선대, 교대, 아시아문화전당(구도청), 예술의 거리, 충장로 등 시내 주요 거점이 10거리
  - 홈플러스, 이마트,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이 인접
  - 전 객실 Free Wifi, 비즈니스센터, 한식당, 커피숍, 와인바, 연회장 등, 다양한 부대시설

Since 1981 **1등 맛집 연속 선정** **광주 1등 맛집**

30년을 고객과 함께 지켜온 광주의 대표 맛집 [www.geumssoogang.com](http://www.geumssoogang.com)

한해동안 보내주시 관심과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2014년 새해에도 최선을 다해 고객님을 섬기는

## 금수장 관광호텔

### 아리랑 하우스가 되겠습니다.

☎ **금수장 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

예약문의 (062) **525-2111** 계림동 홈플러스 건너편

### 정성을 다해 고객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건강한 우리음식 **한정식**으로 만남의 기쁨을 더 하십시오!

2014년 신년회 **떡국식사** 예약 접수중!

**30년 전통의 한정식**

— since 1981 1등 맛집 연속 선정  
— 32년을 고객과 함께 지켜온 광주의 대표 맛집

**Coffee & Wine 카페 보네르 OPEN**